

10/4(월) 데살로니가후서 묵상 7

데살로니가후서 3:1-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확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바울의 선교팀을 위해서도 중보해 줄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제목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첫번째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기서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편지의 결론 부분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고후 13:11; 빌 4:8; 살전 4:1,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이 가진 중보기도의 제목은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비록 복음에 대한 방해가 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힘쓰라고 했던 것입니다(딤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두번째 중보기도를 당부합니다(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당한 것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선교여행 가운데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바울은 그의 선교 여행을 회상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수많은 어려움과 수난을 상세히 묘사합니다(고후 11:23-27,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비록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움까지 겪었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구하는 대로 그의 선교팀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3차 선교 여행까지 무사히 마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차매 사도 바울은 더이상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로마 그리고 땅끝(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로마에서 네로황제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AD 67년경).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태로 2년간 구금되어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그를 방문하는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믿음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 바울은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2 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으로서 복음서에서 네 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마 10:14, 막 6:11, 눅 9:5, 눅 10:10-11,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에 바울이 그의 1차 선교팀과 함께 비시디안 안디옥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그의 발에서 먼지를 떠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행 13:50-51,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처럼 복음의 열매가 없는 지역에서도 바울과 선교팀은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낙심을 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노력한 열심에 비해 결과가 미비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에게 열매는 고사하고 때로는 그들이 매도 맞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감옥에까지 사로잡히는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일로 인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 전도는 단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딤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한 이후에도 한 영혼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서 영혼을 돌보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 된 교회로 함께 부르시고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음의 사명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는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전 세계를 위한 기도:** 유니세프(UNICEF)가 2021년 8월 19일 발표한 ‘기후 위기는 아동권리의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2억 명의 어린이 중 거의 절반이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이미 ‘극도로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폭염, 홍수, 사이클론, 질병, 가뭄 및 대기 오염 등 한 가지 이상의 위험요소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위험요인별로 본다면, 약 9억 2,000만 명의 어린이가 물 부족에, 8억 2,000만 명이 폭염에, 6억 명이 말라리아와 뎅기열과 같은 풍토병에, 3억 3,000만 명은 하천 홍수에, 2억 4,000만 명은 해안 범람 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합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 변화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다음 세대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위원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영어목회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1국 태일 선교사님/가정/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